

옛 찻사발의 투박함서 순수를 보다

불일미술관, 김종훈 작가 도예전 개최

무료대관 행사도 실시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은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김종훈 도예가의 '심산요 도예전- 순수(純粹)' 전시회를 개최한다.

김도예가의 작품에 대해 불일미술관은 "순박한 도공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면서 옛스러운 찻사발의 소박함을 일정한 형식으로 드러낸다"면서 "도공의 수행자적 노력으로 조선 찻사발의 투박함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도예가는 인터넷포털 갤러리, 서울 백상기념관, 동아쇼핑(동아미술관), 법륜사 불일미술관 등의 다수의 개인전과 초대전 등을 열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뉴욕 코리아 쏘사이어티, 터키 앙카라문화원, 경상북도 도청 신청사 등이 있다.

이와함께 개관 20주년을 맞은 법륜사 불일미술관은 신인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전시무료대관을 기획하고 작가를 모집한다.



김종훈 도예가의 작품 '달항아리.'

올 하반기(6~12월) 전시 가능한 작가에 한하며 모집부문은 평면, 입체, 복합, 미디어, 불교미술 등의 개인 및 그룹전이다. 지원 자격은 제한 없으며 대관신청서와 전시계획서, 포트폴리오 등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불일미술관은 "불교계 최초 상설 미술관으로서 앞으로도 일반미술을 물론 불교미술의 신인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733-5322

신성민 기자

처마 끝 풍경을 이어내니...

부명 스님, 5월 3일까지 '風磬을 잇는 風景' 전

풍경(風景)은 사찰 전각의 처마 끝에 매단 종에 물고기 모양의 추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소리를 내는 작은 종이다.

사시사철 불철주야 바람이 이끄는 대로 소리를 내는 풍경은 수행자의 방일이나 나태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즉,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세(警世)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근래에는 'Wind-bell'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해 일반 가정집이나 상품점 등에 매달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인사를 대신하는 초병(哨兵) 역할도 한다. 음악·미술 등 문화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쳐온 부명 스님이 풍경을 이용한 금속공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부명 스님은 오는 5월 3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동 아리수 홀에서 '風磬을 잇는 風景'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명 스님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금속 공예(종환) 작품들이 소개된다. 손 하트로 대



한국과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부처님과 예수님을 비롯해 26종의 물고기와 12지신상, 각종 새와 동물 등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각각 색의 풍경과 바람판, 솟대, 캔들로 새롭게 해석돼 과거와 현대, 나와 세상,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부명 스님은 "작품에는 양과 음, 대와 소로 양분되어가는 세상의 경계를 소통코자 하는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다. 상대적 세계에 있는 너는 곧 나임을, '풍경을 잇는 풍경'이라는 인드라마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212-5653 신성민 기자

국악 교성곡으로 만나는 붓다의 가르침

조계종 불교음악원, 4월 24일 봉축음악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계에서는 의식·의례 음악을 통해 불교만의 독특한 음악 예술을 구축하였을 뿐, 이를 대중화 및 체계화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당시 작곡가 박범훈은 불교음악예술을 우리 한국전통음악예술을 고스란히 담으면서 대중화 및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포교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이런 고민 끝에 현대 불교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연 창작국악 교성곡 '붓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91년 초연된 '붓다'를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다.

조계종과 산하 기구인 불교음악원은 오는 4월 24일 오후 4시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불기2560(2016)년 조계종 불교음악원 부처님오신날 봉축음악회 <붓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조계종단 최초로 설립된 종령 기구 불교음악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음성공양 포교 진흥을 위해 진행된다. 김희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이 지휘를 맡았으며, 연주는 불은국악합주단·중앙국악관현악단이 담당한다.

또한 조계종 불라사 주지 상훈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전수조교 유지숙,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박애리·남상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전수교육조교 김묘선의 협연 등 다채로운 출연자들이 참여한다.

조계사후성합창단, 봉은사어머니합창단, 도선사어머니합창단, 기원사합창단,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홀서 찬불콘서트·교성곡 '붓다' 공연 유명 국악인 남상일·박애리 참여 총 300명 출연 장엄·웅장함 선사

약사합창단, 중앙불교합창단, 관상동여래사합창단, 로터스합창단 등 사찰 합창단도 대거 참여한다. 이번 공연 참여 인원만 3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형공연이 될 전망이다.

공연은 1, 2부로 나뉜다. 1부는 유지숙, 박애리, 남상일 그리고 메트로페라합창단



조계종 불교음악원 봉축음악회 '붓다' 공연 포스터.

의 찬불콘서트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부처의 일생과 가르침을 담은 창작국악 교성곡 '붓다(작사 석성일, 작곡 박범훈)'를 선보인다.

국악 대중화의 선두주자인 박애리와 남상일은 이번 공연에서 '제행무상', '부처님오신날', '백팔번뇌'를 선보이며, 교성곡 '붓다'로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백미(白眉)는 석가모도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교성곡 '붓다'이다. 교성곡 '붓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양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양음악의 칸타타 형식을 빌어 작곡된 곡으로 부처

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총10장(50분)에 걸쳐서 부처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대사를 담아낸다.

이번 공연 지휘를 맡은 김희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은 "1991년 교성곡 '붓다'가 작곡될 당시 작사를 맡으셨던 석성일과 작곡가 박범훈은 이 곡을 통해 세상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세계와 그 깨달음을 좇아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 바랐을 것"이라며 "교성곡 '붓다'를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세계와 그의 깨달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02)3218-486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무용 활성화 마당 펼쳐진다

조계종, 불교무용대전 참가 공모 6월 10일~ 7월 3일 진행 진흥 방안 모색 세미나도

불교무용 예술의 진흥을 모색하고 신진 불교 무용가를 발굴하기 위한 춤마당이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와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대학로 성균소극장 2관 스튜디오 SK에서 제2회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구슬주머니가 첫 선을 보인 불교무용대전은 불교무용의 대중화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개 단체가 참가해 수준높은 전통·창작 공연을 펼쳤다. 제1회 대상(조계종 총무원 장상)에는 불교의 상례절차를 소재로 한 '이화석 전북대 무용과 교수의 대비'가 수상했다.

올해부터는 조계종 문화부가 주최하고, 구슬주머니가 주관단체로 참여해 지난해 보다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인기 작품까지 선정해 수상의 폭을 넓혔다.



제1회 불교무용대전 대상작 이화석 전북대 무용과 교수의 '대비.' 올해에도 불교무용 진흥을 위한 불교무용대전이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무용대전 기간에는 불교무용의 학술적 의미 정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 세미나도 열린다. 6월 14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무용대전의 시작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불교무용의 개념 정리, 발전·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불교무용대전의 가장 특징은 모든 것이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를 위해 4월 11일 참가 공모를 발표했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며, 접수는 이메일(factory2013@naver.com)을 통해 받는다.

지원 자격은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작품의 발표를 원하는 예술인 및 단체면 가능하다.

불교무용대전 주최 측은 "불교의 유입 이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불교무용은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예술적인 시각에서 계승·보존돼야 할 소중한 전통유산"이라며 "불교무용대전은 일반인에게 춤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무용계에는 경협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011-1779 신성민 기자

자연·문화유산 조화 HD영상을 찾습니다

BBS, 제1회 영상공모전 개최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은 개국 26주년을 맞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문화유산'을 주제로 총 상금 1,300만원 규모의 '제1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아름다운 우리강산과 전통문화유산을 기록하며, 자연 환경 보전과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고등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산과 물을 주제로 전통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의 HD화질 형식으로 장르제한은 없다.

개인 또는 팀으로 총 3작품 중복 참여 가능하며, 타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7일까지며, 대상작에게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지급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연관성, 독창성, 기술 및 구성의 완성도 등 종합평가로 이뤄진다. 합격자 발표는 6월 14일 B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705-5302 신성민 기자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산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I) 왁스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양초

로터스양초특징 :

- ① 그늘음이 거의 없습니다.
-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g x 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일본 직수입 향

- 심산자
- 란단향
- 후리자
- 리일락향
- 밀감향

우 창 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